

# 1인 미디어 블로그(Blog)가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

박선희\* · 김연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경작업소 울

## The Landscape of Seonyoo-do Park Captured in One-Person Media Focusing on Blogs

Bark, Sun-Hee\* · Kim, Yun-Geu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ul Landscape Architecture Office

###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has affected the layman's interpretation and production of content. Specifically, the manner and contents of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landscape of Soonyoo-do Park in blogs are surveyed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is phenomenon are discussed. The following topics are dealt with.

Firstly, what is the landscape of Seonyoodo Park as captured by bloggers? What type of landscape do bloggers respond to?

Secondly, what is the unique way that bloggers capture and interpret the landscape?

Thirdly, what a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discovered from the landscape as captured and interpreted by bloggers?

Thus, 1,000 blog posts concerning Soonyoo-do Park, as culled from the Internet,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First are blog posts browsed by keywords such as 'photo', 'a photographer's visit', 'a good place for taking photos', and 'landscape'. These are focused on the visual aspects of the landscape. The second category is posts under the keywords 'domestic travel', 'Seoul travel', 'travel', and 'recommendation'. They contain introductory information on Seonyoodo Park; that is, they focus on the more utilitarian functions of Seonyoodo Park as a place. The third one is posts that record personal experiences. The subjects for photography are the bloggers themselves and their companions.

As a result of studying the way bloggers deal with landscape, it was found that first, people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capture the landscape and interpret the landscape actively and independently. This process can be regarded as the reproduction of landscape and place. In addition, the recording of their appreciation and feeling overlaps with evaluation and assumption. One negative aspect, however, is that many bloggers dramatize and repeat similar scenes. This can be seen as a make-up of imag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difficulty in interpretation because blogs, which are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very subjective and personal. In addition, it was not easy to categorize posts because there were diverse images and a broad range of writing. Nevertheless, practitioners of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continue to monitor and use one-person media like blog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man and the landscape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em.

*Key Words: Internet, Photo, Image, The Public, Interpretation*

**Corresponding author:** Yun-Geum Kim, Wul Landscape Architecture Office, Seoul 100-828, Korea. Tel.: +82-2-2254-0504 E-mail: geumii@empas.co.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화, 소설, 풍경화와 같은 재현 매체를 이용한 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1인 미디어인 블로그(blog)에서의 선유도 경관의 소통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정보화 사회의 영향으로 일반인들도 경관 해석과 이에 따른 결과물 생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었고, 조경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바는 첫 번째는 블로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유도공원의 경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블로그에서의 경관 포착 방식과 해석의 특성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 내 담론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세 번째는 블로그에서 포착하고 해석한 경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된 '선유도공원' 관련 블로그 1,000건을 포스팅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 번째는 '사진, 출사,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블로그의 포스트들이다. 이들은 선유도공원 경관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여행, 서울 여행, 여행,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것들로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유도 공원에 대한 소개를 주고 담고 있다. 즉, 공간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포스트들로서 사진의 피사체는 자신이나 동반한 이들이 된다. 검색 결과,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블로그들이 경관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볼 때, 먼저 사람들은 경관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연출하는 등 경관 포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경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관과 장소의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감상과 느낌의 기록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추측했던 바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 담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과 공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언급도 있어 전문가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블로거들은 경관을 극대화시키거나 비슷한 장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종의 이미지 화장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연구 대상인 블로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나의 포스트에 다양한 사진이 포함되고 글의 범위도 넓어 내용의 유형화와 계량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통해 경관과 현대인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조경분야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터넷, 사진, 이미지, 대중, 해석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규목(2002)은 "경관은 실물, 객관적 실체로서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는 사람의 해석과 의지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하나의 표상된 이미지로서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즉, 경관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화지리학자 투안(정영철 역, 1999)의 "(경관은) 인간과 장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미들로서 존재한다."는 언급과 황기원(1989)의 "(경관)은 인간에 의해 지각된 환경의 국면"이라는 언급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철학자 김명민(2011)도 "(경관)의 그 발견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개인식의 경험 속에서 한순간 안팎으로

밝아오는 상호연관성이며, 인간의 해석학적 조응관계 속에서 재배치된 것이다. 그것은 이차적 자기성찰의 결과물"이라 말한다. 그렇기에 손탁(이재원 역, 2005)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중략)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할 만큼 그 피사체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과 공모하는 행위"라는 말처럼 사진은 사람들이 경험한 경관에 대한 해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배첸(김인 역, 2006)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끊임없이 풍경을 개조'하려는 픽춰레스크 양식이 사진의 강력한 기원이라는 주장과도 닿아 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관 해석과 사진이라는 결과물 생성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의 발전 등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서 시각적 표현에 능숙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로의 소통

또한 인터넷 상에서 급증하게 되었고, 경관은 이러한 이미지 소통의 대상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경관을 시각화 도구 즉, 사진이나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에 포스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1인 미디어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소통 방식 및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은 영화, 소설, 풍경화와 같은 재현 매체를 통한 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경관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재현 매체'를 이러한 관계를 읽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 사례로는 서영애와 조경진(2008)의 영화에 나타난 센트럴 파크의 경관, 이은숙(1993)의 서만식의 소설 '탁류'에 나타난 도시경관 해석 등이 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는 대중을 상대로 하지만, 대중의 경관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방식을 알 수는 없었다. 여기에 일반인이 직접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인 블로그는 공간에 대한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름이 붙여졌다. 한국에서는 2001년 12월 최초로 블로그 이용자들의 모임인 '웹로그인 코리아(<http://www.wik.ne.kr>)'가 생겼고 이때부터 블로그가 네티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각 포털 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기존의 웹 커뮤니티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집단적 규칙에 의해 유지되었다면, 개인 중심 커뮤니티는 개인이 수집하고 공개하는 정보에 의해 유지된다. 기존 개인 홈페이지보다 훨씬 만들기 쉽고, 관리하기 편하다는 기술적 장점이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단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일반인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최문희, 2005).

블로그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블로거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경관에 대한 감상, 느낌, 재해석의 피드백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고 있다. 블로거들이 선택하는 경관은 다양한데, 공원, 도시의 골목길, 달동네 등이 선호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조경이란 행위와 과정이 생산하는 구체적 결과물'의 대표격인 '공원'으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조경가의 의도가 들어간 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 및 태도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가의 의도 및 비평가 견해와의 비교를 통해 전문가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 대상지로는 공원 중 선유도 공원을 선정했다. 선유도 공원은 많은 매체를 통해 '사진 찍기 좋은 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는가 하면 블로거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출사지로 꼽히기 때

문이다.

위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로그에서 포착하는 선유도공원 경관에 대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유도공원의 경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둘째, 블로그에서의 경관 포착 방식과 해석의 특성이다.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 내 담론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셋째, 블로그에서 포착하고 해석한 경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조경분야에서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 2. 선유도공원의 개요

선유도공원은 조선시대의 경승지에서 정수장으로, 정수장에서 공원으로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2000년 공원이 결정되면서 현상 설계가 이루어졌고, 당시 현상 설계 공모지침에서는 선유도의 한강과의 연계, 역사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기존 정수장 시설에 대한 고찰 등을 요구했었다. 이 현상 설계에는 총 6팀이 참가하였고, 조경설계 서안(주)과 다산 컨설턴트, 조성룡 도시건축이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 설계 참여자였던 성종상(2002)은 대상지의 특성에 있어서 기존 정수시설과 한강이란 두 요소에 주목했다고 밝히면서 땅이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며, 그곳에 필요한 타입의 공원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선유도공원은 기존 송수펌프실을 재활용하여 한강의 역사를 전시한 한강전시관, 정수장 침전지를 재활용하여 수생식물원 등으로 탈바꿈한 수질정화원, 정수된 물을 담아두던 정수지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상부를 받치고 있던 기둥을 그대로 살려 덩굴성 식물을 식재한 녹색기둥의 정원, 여과지와 약품침전지에 각종 수생식물을 관찰하고 학습하도록 조성한 수생식물원, 기존 구조물을 온전히 남겨 다양한 식물의 모습으로 꾸민 시간의 정원, 원형 농축조를 재활용한 원형 소극장, 취수펌프실을 재활용한 카페테리아 나무, 선유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한강 선유도의 정수장이 시민공원이 된다는 소식은 계획 초기부터 큰 관심거리였고, 조성 이후 선진국의 사례와 견줄만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으로서, 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시민공원으로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진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진 찍기에 좋은 곳'으로 그 가치가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2003년 디지털 타임스가 선정한 '출사 베스트 7(<http://www.dt.co.kr/contents>)'에 뽑히기도 했고, 2006년 경향신문(2006년 9월 14일)에서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촬영 명소로 소개되었다. 또한 2008년 7

월 한겨레 21에서는 사진명소 답사지로, 2009년 매일경제(2009년 6월 1일)에서는 '초여름 수도권 사진 찍기 좋은 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0년 중앙일보(2010년 3월 9일)에서는 파워 블로거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사지로 선유도 공원을 추천했다. 최근의 소개로는 인터넷 신문인 모모뉴스의 2010년 7월 21일 기사가 있는데, '도심 속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애호가들의 출사장소로 인기가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블로그 관련 용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로그는 웹(web) 로그(log)가 합쳐진 말이며, 블로거(blogger)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블로그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하나의 글(이미지 포함)을 포스트(post)라고 부르며, 하나의 포스트를 올리는 행위를 포스팅(posting)이라 칭한다. 태그(tag)는 글을 쓴 저자가 그 글의 검색을 위하여 감성, 정황, 글쓴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해 둔 일종의 키워드들의 집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된 '선유도공원'과 관련된 블로그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검색은 지식인, 검색엔진 등의 기능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sup>1)</sup> 검색 서비스를 활용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 '선유도공원'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 포스트의 수는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40,194건이었다. 이 중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상의 정보 정확도 순으로 재배열을 거친 후 상위 1,000건을 추출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1,000건의 블로그를 포스팅 목적에 따라 분류했다. 이에 대한 판단 수단으로는 태그 키워드를 사용하였고, 태그 키워드를 따로 제시하지 않은 포스트의 경우는 포스트의 제목을 참조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선유도공원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는 블로그이다. '사진, 출사,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이라는 키워드를 동반한다. 두 번째는 선유도공원이라는 정보에 집중하여 포스팅한 블로그인데, '국내여행, 서울여행, 여행,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것들로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선유도공원에 대한 소개를 주로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기 형식의 포스트로써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인 체험을 주로 기록한 것이며, 사진의 피사체는 주로 자신이나 동반한 이들이 되며, 선유도 공원은 체험의 배경이 된다. 태그 키워드로는 '나들이, 체험, 육아, 데이트, 일상, 기타'를 동반하고 있다. 검색 결과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았다. 기타에는 신문매체 등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벤트 소개, 공원에 대한 개관 등 블로거들이 직접 작성한 정보가 아닌 외부 정보를 수록한 경우가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들 유형 간에 키워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표 1. 선유도 공원에 대한 포스트의 검색 기준 및 결과

유형	태그 키워드	검색 수	비율 (%)
선유도공원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	사진	216	20.1
	출사	65	6.0
	사진 찍기 좋은 곳	6	0.6
	풍경	35	3.2
	소개	322	29.9
선유도공원의 장소적 측면에 집중	국내 여행	81	7.5
	서울 여행	54	5.0
	여행	114	10.6
	추천	30	2.8
	소개	279	25.9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 체험에 집중	나들이	170	15.8
	체험	22	2.0
	육아	56	5.2
	데이트	25	2.3
	일상	134	12.4
	기타	41	3.8
	소개	448	41.6
기타	기관 운영 블로그	5	0.5
	공원 내 이벤트, 행사	4	0.4
	공원에 대한 개관	11	1.0
	기타	8	0.7
	소개	28	2.6
총계		1,077 (중복 포스트 포함)	100.0

\*: 태그 키워드가 겹치는 경우는 겹치는 모든 유형에 포함시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겹치는 경우는 34 포스트였으며,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겹치는 경우는 9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겹치는 경우는 34건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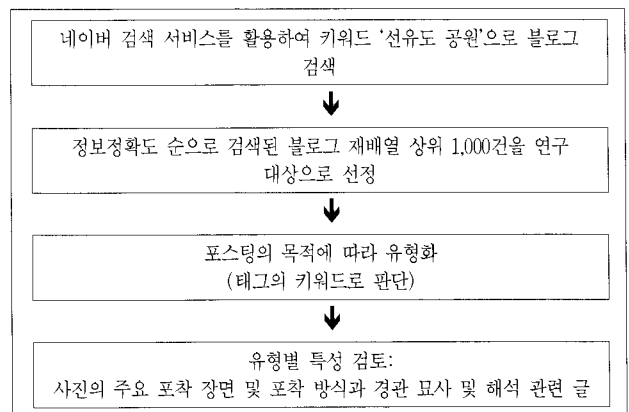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선유도공원의 '사진'이라는 키워드와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쓰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성격을 어느 한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없어 두 가지의 유형에 모두 포함시켰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겹치는 경우는 34건,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겹치는 경우는 9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겹치는 경우는 34건이었다(표 1 참조).

다음 장에서는 포스팅 된 사진과 글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진에 있어서는 주요 포착 장면 및 포착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글에 있어서는 경관의 묘사 및 해석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방법과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II. 본론

### 1. 선유도공원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하는 블로그

'사진, 출사,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 등의 태그 키워드를 동반하는 포스트들로 선유도와 주변의 경관이 포스트의 주요 내용이 된다.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 강운구(2010)는 사진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사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회화성이다. 이 유형은 '사진' 관련 용어를 태그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포스팅의 목적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데 있다. 즉, 사진의 회화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야경 촬영이나 접사, 광각, 망원 등 특수 렌즈가 필요한 사진 촬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진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징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선유도공원의 지리적 특성인 '한강에 있는 섬'이라는 점을 포착하는데, 한강과의 연결성, 공원의 내부보다는 공원의 외부와 맞닿은 강변과의 연결성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한강공원 양화지구의 호안과 양화 선착장, 성산로를 포착하고 있고, 한강에 비친 도시의 불빛, 선유교와 양화대교의 야간 조명 사진도 다수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과 함께 선유도공원을 한강의 섬으로서 기록하고 한강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명명하고 있다. 이는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2006)의 비평 중 "고립되었던 섬은 일상성에서 단절된 공간으로 색다른 느낌을 준다. 선유도가 공원화되면서 한강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언급과 유사성을 갖는다. 또 섬으로서의 경관 특성을 선유도의 한자 뜻과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블로그 'Pix & Dots(<http://www.cyworld.com/sambit2/2398195>)'에서는 선유교와 양화대교 야경 사진과 함께 "신선이 놀다 갔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 선유도가 섬의 뛰어난 경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정수장의 흔적이 드러나는 공원의 구조를 사진으로 포착하고 있다. 정수장 침수지, 원형 농축조 등이 공원의 구조로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나, 시간의 정원 등 정수장 재활용으로 형성된 공원의 입체적 구조 등을 주로 사진으로 담고 있다.

블로그 '관광사진 이야기(<http://blog.daum.net/black4/77>)'에서는 시간의 정원의 입체적 구조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정원은 수로와 1층의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멋진 풍경을 준다(중략). 1층과 2층인데, 간단한 미로 식으로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다. 폐허의 다 쓰러져가는 느낌도 나고, 자연으로의 복귀 같은 생각도 들게 한다."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콘크리트와 철이 수목 및 초화류와 어우러져 있는 이질적 경관을 다룬 사진과 여느 공원에서 만나지 못한 경관이라는 평을 담은 것들이다. 'Which Moon(<http://blog.naver.com/milos78/112370536>)'이라는 블로그에서는 "선유도 안은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로 나무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게 분위기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진을 실고 있고, '그린팍토리(<http://blog.naver.com/winwin1001>)'에서는 "녹색과 콘크리트의 멋진 하모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정수장 흔적으로서의 구조와 물성에 관심을 갖는 포스트들에서는 정수장 활용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이 나타나 있다. 배정환(2009)은 "정수장 건물의 흔적들, 남겨진 기둥과 벽, 물을 담아두던 사각 공간 안에 자라나는 식물들은 다양한 시간의 질감을 남기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블로거들의 미디어 활동 속에도 녹아져 있는 것이다.

넷째는 선유도공원의 수목과 초화를 포착한 것들이다. 이들 블로그에서는 선유도에서 자라는 각종 다양한 식물들에 대한 사진과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에는 접사촬영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례로 '티티러브의 사진 그리고...(<http://blog.naver.com/amen0204/110088003580>)'에서는 연꽃을 접사로 포착한 사진과 함께 "아주 작은 공간에 피어났지만 참 곱다."고 감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따뜻한 세상을 담은 호박툰'에서는 꽃의 꿀을 모으고 있는 꿀벌사진을 포착하며 "흥미를 느낀다"고 기록하고 있다.

### 2. 선유도공원의 장소적 측면에 집중하는 블로그

다음은 '여행, 가볼만한 곳, 데이트 장소, 추천 여행, 나들이'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되는 포스트들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유도 공원을 다루고 있다. 이들 포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원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또 공원으로서 선유도공원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주로 포착되는 경관은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공원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공원과 구별 짓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 공원의 하나로 보는 경우로 휴일을 즐기러 나

온 시민들의 모습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포착한 포스트들이다. 예로서 블로그 '꿈꿔왔던 행복한 삶을 위해(<http://blog.naver.com/qldmlwjwn/120071618600>)'는 "여기저기 보이는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여러 가지 모습의 시민들"이라는 언급과 함께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있다. 블로그 '보헤미안 하늘마루... 비상을 꿈꾸다! (<http://blog.naver.com/coward10/120109902345>)'는 물놀이 장에서의 어린이들의 모습, 선유교에서의 운동 모습, 한강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등을 포착하면서 "복잡한 도심 속의 잠깐의 휴식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유도를 다른 공원과 구별 짓고 있는 것들이다. 이 블로그에서의 시각은 선유도공원 만의 구성, 이용, 가치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 짓기의 시선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유도공원이 재활용공원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 행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태그의 키워드는 다르나 다루는 내용과 사진에 있어서는 위에서 서술한 '선유도공원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 유형 중 '구조적 측면에서 정수장의 흔적'이나 '노출된 이질적 물성 포착'과 유사하다.

재활용공원으로서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예로서는 블로그 'Enjoyholic story(<http://enjoyholic.tistory.com/180>)'가 있는데, 선유도공원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간의 역사, 도시 설계의 한 결과물, 재생된 공간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남쪽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이 들어서 있었으나, 방치되어 버려진 땅이었던 선유도.. 그 옛날 한강 8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선유도는 정수장 건립으로 인하여 파괴가 되었고, 버려진 선유도의 공원과 사업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중략) 연인과 간직하기 좋은 공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낙서 벽이나 코스프레 활동과 같이, 재활용 구조물로 인한 다른 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공원의 이용활동, 여느 공원과 다른 선유도공원만의 특징인 넓은 잔디밭이 없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있다. 블로그 '놀이처럼 살아가기(<http://lemonsing.tistory.com/99>)'의 "공원의 이미지는 그저 너른 풀밭에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한적한 평화를 즐기는 곳이었는데, 선유도 공원은 공원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공원"이라는 정의는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2006)의 "선유도공원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럿이서 뛰어 노는 식의 즐거움보다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 공원의 설계에서 의도적으로 공을 가지고 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노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과 유사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블로그 'Pix&Dots(<http://www.cyworld.com/sambit2/2398195>)'는 약품침전지 속의 수생식물을 포착하면서 "약품침전지를 재활용한 공간이다. 물이 수생식물이 식재된 계단식 수조를 따라

서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방식이다. 수생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엔니오 C(<http://kino1210.blog.me/150096166530>)'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선유도공원을 "대도시 속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 3.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 체험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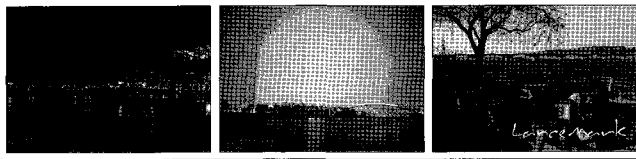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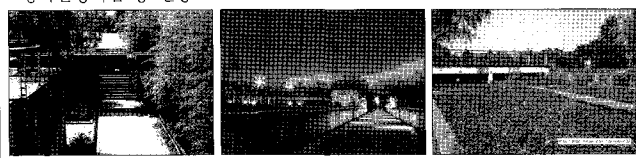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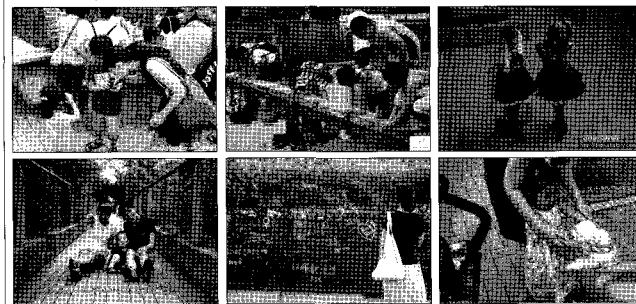
선유도공원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앞 두 형태의 블로그가 선유도공원의 특징적 경관 포착과 여행지로서의 소개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여 '미디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들 블로그는 공원에서의 일상 체험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 블로그들은 선유도공원이라는 공간에서의 개인적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자신이나 동행한 이가 글과 사진의 주인공이 되고 선유도 공원은 배경이 된다. 이 유형은 전체 중에 41.6%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들의 특징은 선유도공원에 대한 포스트를 웹 상에 전시하거나, 정보화하려는 등의 특정 목표가 없이, 순수하게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개인적인 기록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들 포스트의 유형이 여가를 즐기려는 순수한 목적에서 공원을 찾은 경우이며, 태그 키워드의 다양성은 여가의 행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경관'과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블로거들의 여가의 행태가 어떠한 경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들 포스트에 오른 사진들은 벤치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강, 노출된 정수장의 흔적, 식물 등을 배경으로 하는 모습 등이 주를 이루며, 가족사진, 어린이들의 사진이 많다. 배경으로서의 경관이 나타나지 않는 벤치 관련 이외의 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페테리아 나무나 선유교 등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의 사진이 많고, 노출콘크리트나 녹슨 철벽, 부레옥잠이 자라고 있는 수생식물원 등등이 주요 배경이 된다. 한강, 노출 콘크리트나 녹슨 철벽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서는 선유도 공원의 특징이 글과 그림에서 강조되었다. 일례로 'Youn's story'(<http://blog.naver.com/bebeyj>)에서는 "모든 게 하나하나 신기하고 재미나는 모양이다."라는 글과 함께 기존의 정수장 시설로 쓰였으나, 현재는 조형물로 쓰이고 있는 철제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린이를 사진으로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종류 포스트의 배경은 첫 번째 유형인 '선유도공원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과 두 번째 유형인 '선유도 공원의 공간적 측면에 집중'에서 포착하고 있는 경관과 유사하나,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 4. 종합 및 시사점

위에서와 같이 블로거들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경관의 특

표 2. 연구의 종합

대구분	소구분	글의 주 서술 내용	사진의 주요 포착 장면 및 포착 방식
선유도공원의 시각적 측면에 집중	한강의 섬으로서의 선유도 공원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유도공원과 맞닿은 경관과의 연결성</li> <li>· 선유도공원을 한강과 연관 지어 명명(ex. 한강의 정적인 휴식처 선유도공원, 한강의 섬 선유도공원, 한강 선유도공원 둘러보기)</li> <li>· 섬으로서의 경관 특성을 '선유도'의 한자 뜻과 연결(ex. 나뭇가지 사이의 강바람에 나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곳 선유도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이 보이는 경관, 선유교와 한강변이 보이는 경관을 포착</li> <li>· 한강에 비친 도시의 불빛 등 야경의 사진도 다수를 이룸</li> </ul> 
	구조적 측면에서 정수장의 흔적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유도의 과거 흔적과 변화된 모습 간의 조화에 의미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의 모습이 포착되도록 투시도 형태로 사진의 구조를 잡고 있음</li> <li>· 광각촬영기법 등 활용</li> </ul> 
	노출된 이질적 물성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나 철 등의 재료와 공원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기록(ex. 선유도 안은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로 나무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게 분위기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보다는 콘크리트나 철계 같은 물성을 포착</li> </ul> 
	수목과 초화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에 포착하며 감상(ex. 아주 작은 공간에 피어났지만 참 곱다, 꿀을 모으는 꿀벌님 카메라 셔터 소리에도 애지간해선 꿈쩍도 안 해요)</li> <li>· 특히 연꽃에 대한 감상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에 밀착해서 찍은 점사촬영이 많음</li> </ul> 
선유도공원의 공간적 측면에 집중	일반적 공원으로서의 선유도 공원에서의 이용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 휴식, 데이트장소로서 선유도공원에 대해 이야기 함(ex. 사람 사는 곳, 한강을 풍경 삼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 놀이,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들을 포착</li> </ul> 
	다른 공원과 다른 선유도 공원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유도공원이 재활용공원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이용행태에 대해 다룸(ex. 다른 공원들처럼 너른 벌판이나 잔디밭은 없지만 독특한 구조와 재미있는 조명들이 있어...)</li> <li>·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것(ex. 약품 침전지를 재활용한 공간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수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을 주로 포착</li> <li>· 내세우는 태그의 키워드는 다르나,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는 '선유도공원의 특징적 경관을 다룬 블로그' 중 '구조적 측면에서 정수장의 흔적'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관 포착</li> </ul>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 체험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기형식으로 선유도공원에서의 자신의 일상을 기록, 피사체인 사람에 집중되어 있음(ex. 아기와 보낸 시간, 동호회 활동, 저녁 산책 이야기 등)</li> <li>· 눈으로 보고 만지는 생태체험장으로서 선유도공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ex. 모든 학교의 수생식물을 찾아라 체험학습, 등대문 나눔연대의 체험학습 모습 등을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 휴식공간, 정수장의 흔적이 노출된 공간, 소생식물원 등을 배경으로 하는 자신들의 경험을 포착함</li> <li>· 가족사진, 어린이들의 사진이 많음</li> </ul> 	

색, 공원으로로서의 가치 같은 내용부터 개인의 경험까지 선유도공원의 경관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 2처럼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에서 경관을 다루는 방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경관의 재생산과 장소의 재생산에 관한 것이다. 경관을 매체로 하는 전문가적 행위로서 공원이 조성되었지만, 일반인들은 결과물로서의 경관을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다. 대중들의 경관을 포착하는 능력은 향상되어 경관을 단순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특징적 경관을 찾아내서 포착하고, 다양한 사진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연출하고 해석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관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경관의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풍경화와 픽셀레스크 정원 양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처럼, 그리고 경관을 포착하려는 욕망이 사진의 기원이 되는 것(김인 역, 2006)처럼 매체간의 이동을 통한 경관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설계자 성종상(2002)의 언급처럼 지리적 조건 등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 수 있는 근린공원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경관을 재생산해 내는 블로그와 같은 문화 작용으로 인해 선유도공원은 베스트 출사지로서, 한번쯤 가보고 싶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관을 물리적인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 모두에서 주체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보는 사회 구성론적 관점(김연금 등, 2009)과도 맞닿아 있다.

두 번째는 경관을 포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대중과 전문가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서, 전문가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의 1인 미디어의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로거들의 글은 폭이 넓어 사소하게는 즐거웠던 공원 나들이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일부는 전문가들의 담론과 많은 부분 겹쳤다. 한강과 재활용 공원에 대한 가치 부여, 노출된 정수장의 구조물과 자연식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기록하는 포스팅에서 본래의 설계의도가 잘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앞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비평가의 비평내용과의 유사성도 많은 블로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례로 블로그에서의 한강과 선유도공원과의 관계는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2006)의 비평글과, 선유도공원의 물성에 대한 포착은 배정환(2002)의 비평 글에서의 물성에 대한 지적과 맞닿아 있다. 반면, 1,000건의 블로그를 살펴 볼 때 상반되는 의견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전문가 담론과의 유사함은 블로거들의 시선의 예리함도 있겠지만 비평가 담론의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런데 블로그의 사진과 글은 전문가들의 담론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포착하지 않은 못한 장면을 포착하는 경우가 있고, 공원에의

접근성이나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시스템의 내용에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 실천에 대한 피드백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경관의 재생산이 가져오는 이미지 소비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블로거들은 경관을 재생산하는 긍정적 역할 이외에도 경관을 장소가 아닌 이미지로 소비하는 부정적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경관의 극화이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블로거들이 기록사진을 넘어 예술사진을 추구하다 보니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심혜련 역(2005)은 정보는 매체적 프레젠테이션 가능성의 관점에서 연출된다고 했는데, 블로거들은 이미지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미지 화장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선유도공원이라는 장소적 맥락에서 경관을 포착하기보다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녹색기둥의 정원, 노출 콘크리트 벽면, 선유교와 한강 야경 등 알려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배정환과 정인모 역(2010)은 인터넷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공간적 거리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다양한 공간을 방문하여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관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선유도공원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이미지로 감상하거나, 방문하기 전 미리 선유도공원의 경관을 검토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경관 체험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경관에 대한 순수 체험을 방해할 수 있다(김영민, 2011).

### III.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문화가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시작했다. 즉,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경관 해석과 이에 따른 결과물 생성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로서 1인 미디어 블로그에서의 경관의 소통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영화, 소설, 풍경화와 같은 재현 매체를 통한 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와는 달리 블로그는 일반인이 직접 운영하기에 경관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담론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된 '선유도공원' 관련 블로그 1,000건을 포스팅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 번째는 '사진, 출사,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블로그의 포스트들로서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데 주목적을 갖는다. 이들은 선유도공원의 경관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강과의 관계,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수장의 흔적, 콘크리트나 철 같은 재료, 다양한 식생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국내 여행, 서울 여행, 여행,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것들로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유도 공원에 대한 소개를 주고 담고 있다. 즉, 경관보다는 공간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다룬다. 이 유형이 보이는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일반적 공원으로선 선유도 공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공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재활용공원이라는 것, 생태공원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들로서 선유도 공원은 체험의 배경이 된다. 사진의 피사체는 자신이나 동반한 이들이 되는데, 한강, 정수장의 흔적이 노출된 공간, 소생식물원 등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포착하고 있었다. 이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블로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개인적인 기록을 위함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순수한 목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블로그들이 다루는 경관의 특성을 살펴볼 때, 먼저 블로거들은 선유도공원의 미시적인 경관 특성을 세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경관을 단순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연출하는 등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경관을 포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관과 장소의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블로거들의 감상과 느낌의 기록에서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추측했던 것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선유도공원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고,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블로거들의 활동이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넘어서 재해석의 미디어 행위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블로거들은 경관을 재생하는 긍정적 역할 이외에도 경관을 장소가 아닌 2차원의 이미지로 소비하는 부정적 역할도 하고 있었다. 예로서 경관을 극화시키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블로그의 특성상 이미지로 사람들과 소통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이미지 화장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소비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경관에 대한 순수 체험을 방해할 수 있다.

최문희(2005)의 견해처럼 블로그라는 개인 매체는 기존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세밀하고 사실적인 콘텐츠다. 이러한 점으로 연구의 의의와 함께 한계를 모두 갖게 되었다. 먼저 블로그를 통해 개인이 체험하는 경관의 특성과 해석방식을 볼 수 있었지만, 연구 대상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포스트의 태그 키워드를 기준 삼아 포스팅의 목적에 따라 블로그들을 유형화했으나, 하나의 포스트에 다수의 사진이 있고 글의 범위도 다양해 이를 다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고 계량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블로그를 구분하는 시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개인적 체험 측면이라는 세 가지 기준과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블로거들의 경관에 대한 접근 태도 및 방식,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원이 더 이상 사람이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의 장이 아니다'라고 한 선유도공원 설계자의 말처럼(성종상, 2002), 경관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이 그저 눈으로 보거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림'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관계의 방식과 표현은 정보문화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경관을 해석하고 논하는 주체 층이 일부 전문가 집단 같은 소수의 집단에서 진정한 주체 층인 대중으로의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통한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경관과 현대인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조경분야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 1. 포털사이트 중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모바일웹 즐겨찾기에서도 60% 가까운 설정률을 기록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1년 5월 30일, <http://www.consumernews.co.kr/>).

## 인용문헌

1. 강운구(2010) 강운구 사진론. 서울: 열화당.
2. 김연금, 김해경, 최기수(2009) 인사동 경관의 사회 구성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6(6): 91-101.
3. 김영민(2011) 비평의 숲과 동무공동체. 서울: 한겨레출판.
4. 김인 역(2006) 사진의 고고학: 빛을 향한 열망과 근대의 탄생. Batchen, Geofferey, 서울: 이매진.
5. 배정환(2002) 시간의 정원, 발전의 디자인: 선유도공원이 전하는 말. 환경과 조경 171: 84-89.
6. 배정환(2009) 선유도, 문화를 생산하는 공원(서울학연구소 편, "한강의 섬"). 서울: 마티. pp. 157-178.
7. 배정환, 정인모 역(2010) 공간 장소 경계, Schroeter, Marcus. 서울: 에코리브르.
8. 서영애, 조경진(2008) 영화에 나타난 센트럴 파크의 문화 경관 해석: 우디 앨런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20(2): 62-78.
9. 성종상(2002) 선유도공원: 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 환경과 조경 170: 50-57.
10. 심혜련 역(2005) 미학의 경계를 넘어, Welsch, Wolfgang. 서울: 향연.
11. 이규복(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12. 이은숙(1993) 문학작품 속에서의 도시경관: 체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 1-27.
13. 이재원 역(2005) 사진에 관하여, Susan Sontag. 서울: 이후.
14. 정영철 역(1999) 공간과 장소, Yi Fu Tuan. 서울: 태림문화사.
15.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2006) 한국의 공원, 퍼주: 조경. pp. 284-289.
16. 최문희(2005) 인터넷 매체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게임, 채팅, 블로그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광고홍보학과 박사학위논문.
17. 황기원(1989) 경관의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18. 2006년 9월 14일, 경향신문. '이곳을 담으면 '그림'이 된다'.
19. 2009년 6월 1일, 매일경제. '조여름 수도권 사진 찍기 좋은 곳'.

20. 2010년 3월 9일, 중앙일보, '파워 블로거가 본 영등포구'.  
 21. <http://blog.daum.net/black4/77>, 관광사진 이야기.  
 22. <http://blog.naver.com/amen0204/110088003580>, 티티러브의 사진 그리  
 고...  
 23. <http://blog.naver.com/bebeyj>, Youn's story.  
 24. <http://blog.naver.com/coward10/120109902345>, 보헤미안 하늘마루... 비  
 상을 꿈꾸다.  
 25. <http://blog.naver.com/mls78/112370536>, Which Moon.  
 26. <http://blog.naver.com/qldmlwjwn/120071618600>, 꿈꿔왔던 행복한 삶  
 을 위해.  
 27. <http://blog.naver.com/winwin1001>, 그린팩토리.

28. <http://enjoyholic.tistory.com/180>, Enjoyholic story.  
 29. <http://kino1210.blog.me/150096166530>, 엔니오 C.  
 30. <http://lemonsign.tistory.com/99>, 놀이처럼 살아가기.  
 31. <http://www.consumernews.co.kr>,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1년 5월  
 30일.  
 32. <http://www.cyworld.com/sambit2/2398195>, Pix&Dots.  
 33. <http://www.dt.co.kr/contents.htm>, 2003년 6월 5일, 디지털 타임스,  
 '출사 베스트 7'.  
 34. <http://www.momoneews.com>, 2010년 7월 21일, 인터넷 신문 모모뉴  
 스, '도심 속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5월 31일  
 심 사 일: 2011년 6월 21일(1차)  
 2011년 6월 25일(2차)  
 계 재 획 정 일: 2011년 6월 25일  
 3인익명 심사필